



# “日本産 알칼리 이온수기 조작해 직접 개발”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이 유지되고 각종 질환이 낮습니다.”

김영귀 KYK김영귀환원수 대표는 현대인의 건강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마시는 물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몸의 70%, 혈액의 83%가 물인데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무렇게나 마시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좋은 물’은 알칼리 이온수다.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 입자가 작아 체내 흡수가 잘된다는 이유에서다.

### ◆“알칼리 이온수, 위장증상 개선”

중소기업청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으로 뽑힌 KYK김영귀환원수는 수소이온농도(pH) 7.5~11.0의 알칼리 이온수를 만드는 의료기기다. 수돗물을 깨끗한 물로 정수한 뒤 전해조에서 산성수(pH 7 이하)를 걸러내고 알칼리 이온수만 분리해 뽑아낸다. 전해조에는 이 회사가 특허를 받은 백금티타늄 전극판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대 위장증상을 개선하는 데 알칼리 이온수 기기가 효능이 있다고 인정해 2008년 의료 기기로 허가를 내줬다. 다만 체질 개선이나 아토피 개선 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제품 설명이나 홍보에 쓰지 못하게 했다.

김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알칼리 이온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 “이 물을 마시면 4대 위장증상 이외에도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물 분자 크기가 작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좋고, 음식물 섭취가 힘든 암 환자조차 목 넘김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 ◆30년 넘게 물 연구

김 대표가 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그는 독학으로 사상 의학, 분자교정의학 등을 공부했다. 그러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물, 공기, 빛과 열, 소금 등 4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물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판단했다. 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효능을 듣고 국내외 장수마을을 돌아다니며 직접 시험을 해보기도 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일본 기업이 제조한 알칼리 이온수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의 성능이 조잡하다고 느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2004년 회사를 설립했고 이듬해인 2005년

### “병 고친다” 광고했다 고발 당해 포기 않고 30년간 물 연구 식약처 인정 받고 철담훈장 받아

자세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의사와 교수 등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물로 여러 질병을 고치는 게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게 화근이 됐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 고발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굽히지 않았다. “30년 넘게 물을 연구한 결과 알칼리 이온수 효능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2011년 특허청이 주최한 ‘46회 발명의 날’에 철담산업훈장을 받았다. 독일발명대회 등 국제 발명대회에 나가 지금까지 8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안재광기자 ahnjik@hankyung.com



김영귀 KYK김영귀환원수 대표가 알칼리 이온수의 4대 위장증상 개선 효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인피노의 세라믹 먼도기 ‘세레이저’ 070-4820-0588 △KYK김영귀환원수의 알칼리 이온수기 (031)777-3939 △스빈스코프의 올인원 커피 제조기 ‘카플라노 클래식’ (02)2163-0287 △스킨색의 스마트폰-태블릿PC용 터치펜 ‘필 스타일러스 플렌’ 070-4353-6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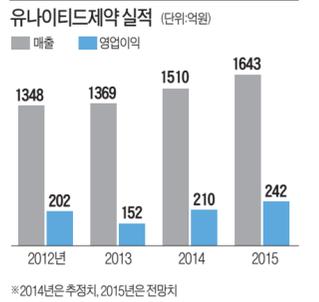
# 매출액의 10%이상 R&D 투자 유나이티드 제약 매출 1500억 돌파

### 천식흡입기 시장도 연내 진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대표 강덕영)은 중견 제약업체로는 드물게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제약회사다. 상위사들조차 고전한 지난해 10% 이상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매출 1500억원을 넘어선 것도 꾸준한 ‘연구개발의 힘’이라는 게 강덕영 대표(사진)의 설명이다. 영업이익도 약 210억원을 달성하며 실속을 챙겼다.

강 대표는 “2007년부터 연 매출의 13~14%가량을 연구개발에 집중해 여러 개량신약을 개발해온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용 편이성이나 흡수력을 개선한 개량신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10년 처음 내놓은 소염진통 개량신약 ‘클란자’를 비롯 3개의 개량신약을 출시했다. 올해도 진해거담제 등 개량신약 3개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서 올해도 10% 이상 성장할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대표는 “2010년에는 개량신약 매출이 전체의 1%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0%까지 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5% 선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수출 비중도 1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공격 투자는 올해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에는 150억원을 들여 세중시에 항생제 전문 공장을 짓는다. 새로 허가를 추진 중인 흡입형 천식치료제는 회사 차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대형 품목이다.

강 대표는 “국내 업체가 자체 기술로 천식흡입기를 제작한 것은 한미약품에 이어 두 번째일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천식치료제 개발과 별도로 흡입기 자체 제작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관련 설비를 새로 구입했다.

국내 천식흡입기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주요 제품 특허가 2011년 만료됐지만 흡입기 제작 기술장벽 때문에 지난해 처음 국내 제약이 나왔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 중기청, 中 IDG캐피탈과 1000억 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VR빌딩에서 중국 IDG캐피탈과 100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벤처펀드’(가칭)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DG캐피탈과 외국 투자자들이 결성액의 60%를 출자하고, 중기청이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40%를 부담하는 구조다.

1992년 설립된 IDG캐피탈은 운용자산 약 5조원 규모의 중국 2위 운용사다. 바이두, 텐센트, 소후 등 400여개 기업에 투자했다. 미국 IDG그룹 주도로 설립됐지만 지분 대부분은 중국 현지 파트너들이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베이징이며 상하이, 광저우, 홍콩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구오이홍 IDG캐피탈 공동대표 등이 직접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은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미디어통신(TMT), 콘텐츠, 헬스케어, 바이오, 환경기술, 게임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1위 기업을 키워낸 노하우를 가진 IDG캐피탈과 손을 잡게 되면서 현지 시장 진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동혁기자 otto83@hankyung.com

# 중화권 진출 나선 메디톡스

### 대만 의료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바이오 제약업체인 메디톡스(사장 정현호·오른쪽)가 대만 의료기기 및 미용제품 판매 업체 DMT(대표 토니 푸·왼쪽)와 합작법인 ‘메디톡스 타이완’을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메디톡스와 DMT가 각각 6 대 4 비율로 출자했다. 이사회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메디톡스가, 사장은 DMT

가 맡는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메디톡스의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이다. DMT는 대만의 의료기기 회사 중 유일하게 상장된 업체다.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에서 미용 제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보툴리눔독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메디톡스 기술력과 DMT의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



메디톡스는 지난해 보톡스 개발회사인 미국 앨러간에 보툴리눔독신 기술을 수출하는 등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 소공인지원센터 25곳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작년 8곳에서 올해 25곳으로 확대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소공인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등 특화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신규로 선정되는 17개 운영기관에는 평균 3억5000만원씩(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정책과(042-481-8923)나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소공인팀(042-363-7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고려대학교 자금조달 컨설팅 과정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실무자과정

“길을 찾아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

자금조달 무엇이 문제인가! 본 자금조달 실무자 과정은 중소기업창업에서 성장까지 기업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과 훈련을 위한 실무과정입니다.

자금조달! - 매주 수요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라이시움(6호선 고려대역 1번출구)

과정명	투자유치 과정
<b>정책자금 과정</b>	<b>투자유치 과정</b>
<b>과정소개</b> 정책자금조달 활용, 기업 신용관리, 성공적인 자금조달 방법과 소요자금계획, 벤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자금조달 계획, 상환전략	<b>과정소개</b> 투자유치조달, 성공적인 투자유치 방법과 소요자금계획,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자금조달 계획, 조달 후 사용계획수립,
<b>특징</b>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및 문제현안에 관하여 지도	<b>특징</b> 수업 중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및 문제현안에 관하여 지도
<b>지원자격</b> 중소기업, CEO, CFO, 경영지원팀원, 컨설턴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직 종사자, 법인보험 및 금융인, 취업 또는 창업 준비중인 청소년 및 일반인 남녀	<b>지원자격</b> 중소기업, CEO, CFO, 경영지원팀원, 컨설턴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직 종사자, 법인보험 및 금융인, 취업 또는 창업 준비중인 청소년 및 일반인 남녀
<b>모집인원</b> 30명	<b>모집인원</b> 30명
<b>모집기간</b> 선착순 등록 조기마감	<b>모집기간</b> 선착순 등록 조기마감
<b>수강등록</b> 수강신청 전화: 02-3290-1463, 개별상담: 010-8428-9693	<b>수강등록</b> 수강신청 전화: 02-3290-1463, 개별상담: 010-8428-9693
<b>입금계좌</b> (하나은행: 391-910004-61804, 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b>입금계좌</b> (하나은행: 391-910004-61804, 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b>수강료</b> 98만원	<b>수강료</b> 98만원
<b>교육기간</b> 2015. 03. 04~ 04.08 - 6주 (매주 수, 오후 4시~ 6시 20분)	<b>교육기간</b> 2015. 03. 04~ 04.08 - 6주 (매주 수, 오후 4시~ 6시 20분)
<b>교육장소</b>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2층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번 출구 바로 앞	<b>교육장소</b>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2층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번 출구 바로 앞
<b>특전</b> 고려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민간자격증수여, 고려대학교병원 할인혜택, 원생증 발급(도서관 이용), 자금조달 자문 및 지도, 수료생 네트워크, 주치할인, 수료 후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고교과정 추천 및 취업 자문 도움.	

http://edulife.korea.ac.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edulifekorea

현재 새 홈페이지로 업데이트 중인 관계로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은 아래 전화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KOREA UNIVERSITY 수강신청 및 상담: 02-3290-1463~4